

신라 무인담의 전승양상과 의미*

- 『삼국사기』 소재 전공담을 중심으로 -

정재민**

1. 들어가는 말
2. 신라 무인담의 전승양상
3. 전공담의 유형과 구조
4. 전공담에 담긴 신라인의 의식세계
5. 나오는 말

<국문요약>

본고는 신라 무인담에 대한 포괄적인 고찰을 목적으로 『삼국사기』 소재 신라 무인담의 전승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전공담의 구조와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먼저, 신라 무인담은 시대적으로는 삼국통일전쟁을 치렀던 7세기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계층적으로는 상하층을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삼국사기』 열전에 입전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볼 때 신라인들은 무인의 비중을 비교적 높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출신보다는 그 사람이 남긴 행적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없이 많은 싸움을 치르면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친 무장들을 최우선적으로 기억하고자 했던 7세기 신라인들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무인담의 핵심인 전공담은 주인공의 활약상에 초점을 두어 분전형,

* 이 논문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의 '11년도 군사학술연구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보완한 것임.

** 육군사관학교 국어·철학과 교수.

지략형, 희생형, 신조형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등장인물의 행적을 기준으로 ‘위기-분전/지략/희생/신조-위기 해소-포상’이라는 공통적 유형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 전공담 속에는 첫째, 패배한 싸움도 승리로 인식하는 내적 승리 또는 정신적 승리를 지향하려는 신라인의 의식이 함축되어 있다. 이는 싸움의 실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싸움의 과정을 통해 구현된 정신을 우선시 했음을 말해준다.

둘째, 전공담에는 결사의 실행이라는 정형화된 순교자적 죽음의 방식이 형상화되어 있다. 순교자가 신앙을 고백하고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순교 전후 사회적 상황을 변화시키듯이, 신라 무인들은 죽음에 임하는 소회를 밝히고 죽음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순교자적 죽음의 이면에는 임전무퇴에 기초한 결사와 유교적 충의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전공담에는 충, 효, 의, 용기, 희생정신 등의 덕목을 중시하는 전사형 무인상이 정립되어 있다. 전사형 무인상은 삼국의 대립 속에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에 기초한 것으로, 전쟁이 잦았던 당시의 시대정신의 발로이다. 한편, 전사형 무인상은 7세기 이후 점차 인정을 베풀거나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는 등 덕행을 갖춘 무인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 이는 신라사회가 처한 사회적, 문화적 바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삼국사기, 무인담, 전공담, 내적 승리, 순교자적 죽음, 전사형 무인상

1. 들어가는 말

문학사적으로 볼 때 『삼국사기』는 설화와 역사를 구태여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여기던 풍조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 새로운 규범을 마련했다는 점¹⁾에서 의미가 크다. 격식을 갖춘 고문이 처음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과, 역사적 기술과 민간전승을 결구시켜 다양한 인간상을 그려낸 列傳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전체 10권으로 이루어진 열전은 『삼국사기』 전체 분량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분량이다. 열전 속에는 명장, 학자, 충신, 역신의 순으로 86명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군이 바로 명장들이다. 명장 이야기가 가장 많다는 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삼국통일전쟁을 치렀던 신라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를 두고, 최남선은 “소나·취도·눌최·김영윤·관창·김흠운 등 용사의 장렬한 사적은 그때 사람들이 즐겨 노래로 읊조리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²⁾ 김태준은 『삼국사기』에 실린 설화 중에서 용감한 무사담과 질박한 연애담이야말로 모래 속에 반짝이는 黃金粒이라고 예찬하기도 했다.³⁾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가치를 지닌 명장 이야기에 대한 연구는 일부 특별한 국면을 갖춘 인물에만 편중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특히, 김유신, 을지문덕, 온달처럼 이야기의 내용이 풍부하거나 후대 설화와의 연관성이 뚜렷한 인물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⁴⁾ 이제는 이런 편중성에서 벗어나 명장담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연구는 다른 부류의 인물을 다룬 이야기에 비해 명장담을 특히 활발하게 전승했던 신라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줄 수 있으며, 나아가 신라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단서를 제공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명장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신라 무인담의 전승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흔히, 무인담이란 무인들의 성품과 행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군의 이야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⁵⁾ 이렇게 무인담의 성격을 한정했을 때 열전에 수록된 명장 이야기들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무인담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연

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권1, 지식산업사, 1982, 363쪽.

2) 최남선, 『고사통』, 제3권, 1944, 33쪽(『유당 최남선전집』, 권7, 역락출판사, 2003, 488쪽.)

3) 김태준, 『조선소설사』, 도서출판예문, 1989, 27~28쪽.

4) 김유신, 을지문덕, 온달, 궁예, 견훤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들 기존연구에 대한 개별적 검토는 생략하기로 한다.

5) 조동일 외, 『한국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12쪽. 일반적으로 설화는 주체가 특이한 설화와 상황이 특이한 설화로 나눌 수 있다.

구 대상이라고 할 만하다.

2. 신라 무인담의 전승양상

신라 무인들에 대한 기록들은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후대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해동역사』, 『동사강목』 등의 지리서와 역사서에 널리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위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화랑세기』에도 화랑에 관한 자료들이 실려 있다.⁶⁾ 하지만 후대에 편찬된 자료는 대부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렸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라 무인담의 전반적 전승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들 책자에 전해지는 자료를 먼저 살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린 신라 무인담은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다. 먼저, 『삼국사기』 권41부터 43까지 실린 <김유신>전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專傳으로서 가계, 출생, 성장, 전공, 봉작, 사망 등 연대기를 기준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안에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내용들뿐 아니라, 민간전승을 수용한 내용들도 다분히 혼재되어 있다. 이렇듯 <김유신>전은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설화를 결구시켜 한 편의 전을 엮어내고 있다.

하지만, 김유신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특정한 한두 편의 삽화로 이루어진 짧은 형태의 전이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한 편의 전이면서, 또한 동일한 주제의식을 가진 작품들이 공존하는 畧傳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다.⁷⁾ 다시 말해 각 권별로 공통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들을 모아 함께 수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김유신>전을 제외한 나머지 무인담을 일괄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6) 김대문, 정태현 역, 『화랑세기』, 신라문화계학술발표회논문집, 제10집, 1989 ; 김대문, 이종욱 역주, 『화랑세기』, 소나무, 1999 ; 이종욱,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김영사, 2000.

7) 강혜선, 「삼국사기 열전의 고문적 특성 연구」, 『돈암어문학』 제15집, 돈암어문학회, 2002, 189쪽.

권수	성명	주요 행적 및 전공
권44	거도	- 탈해왕(재위 57~80) 때 관직에 나와 간(干)에 오름 - 변경의 지방관이 되어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을 마기(馬技)의 책략을 이용하여 복속시킴
권44	이사부	- 지도로왕(지증왕 ; 500~514) 때 연해 지방관이 되어 가야국을 마희(馬戲)로 속여 복속시킴 - 512년(지증13), 아슬라주 군주시절에 나무사자를 이용하여 우산국을 병합함 - 550년(진흥11),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싸웠는데, 그 틈을 이용하여 도살성과 금현성을 탈취함
권44	사다함	- 562년, 가야 정복시 선봉공격으로 전공을 세움 - 563년, 17살 무관람이 죽자 약속대로 따라 죽음
권45	귀산, 추항	- 602(진평24), 아막성을 공격한 백제군을 물리쳤으나, 백제의 매복에 걸려 부친 무은을 살려내고 죽음
권47	해론 (찬덕)	- 610년(진평23), 찬덕이 가잠성 현령에 제수됨 - 611년 10월 백제의 가잠성 침략시 3개월 농성전 끝에 함락되자, 찬덕이 느티나무에 부딪혀 자결함 - 해론이 20살 때 부친의 음공으로 대나마에 임명됨 - 618년(진평40), 해론을 금산당주에 임명되어 한산주 도독 변품과 함께 가잠성 습격시 전사함
권47	설계두	- 621년(진평43), 물래 배를 타고 입당 -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시 자천하여 당의 벼슬을 받고 중군, 주필산 아래에서 전사함
권47	눌최(종)	- 624년(진평46) 10월, 백제가 6개의 성을 포위 공격시 눌최와 그의 종이 분투하다 전사함
권47	죽죽(용석)	- 642년(선덕11) 8월, 백제가 대야성 공격시 김품석이 자결한 후 죽죽과 용석이 분전하다 전사함
권47	비령자 (거진, 합절)	- 647년(진덕1), 불리해진 전세 역전을 위해 김유신이 비령자에게 회생을 권유하자, 분전하다 죽음 - 그의 아들 거진, 종 합절도 그의 뒤를 따라 죽음

권47	김흠운 (예파, 적득, 보용나)	- 655년(태종2), 백제군의 습격으로 위기에 처하자, 주위의 후퇴 권유를 물리치고 분전하다가 죽음 예파·적득·보용나도 그의 뒤를 따라 죽음
권47	반굴	- 660년(태종7), 황산벌에서 신라군의 사기가 저하되자 김흠운이 아들 반굴을 홀로 출전시켜 죽음
권47	관창	- 660년(태종7), 황산벌 전투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김품일이 아들 관창을 출전시켜 싸우다 죽음
권47	필부	- 660년(태종7), 고구려가 칠중성을 포위 공격시, 20일간 성을 지켰으나 비사의 배신으로 분전하다 죽음
권47	열기	- 661년(문무1), 평양성을 공격하던 소정방에게 군량미를 수송할 때 열기가 김유신의 권유로 소식을 전함
권47	취도 (부과, 꺾실)	- 태종 때 백제의 조천성 공격시 취도가 환속, 종군하다 죽음 - 671년(문무11), 형 부과가 웅진성 싸움에서 전사함 - 684년(신문4), 동생 꺾실이 보덕성 싸움에서 전사함
권47	심나	- 인평 연간(634~647), 사산현에 침입한 백제군을 심나 혼자 분전하여 후퇴시킴
권47	소나(처)	- 675년(문무15), 말갈의 아달성 공격시 분전하다가 전사함. 처도 남편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함
권47	김영운	- 684년(신문4), 실복이 보덕성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김영운이 출전하여 분전하다가 죽음
권48	검군	- 627년(진평49), 사인들의 곡식 절도에 불참했다가 스스로 독배를 마시고 죽음
권48	효종랑	- 진성여왕(재위 887~897) 때 효녀 지은을 도와줌

이를 보면, 권44에서는 지략을 이용하여 승리한 무인담을 신고 있고, 권47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무인들의 이야기를 모아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정한 주제외식 아래 비슷한 내용을 가진 무인담을 분류하여 수록했는데, 이들 무인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등장인물의 활동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대부분 7세기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권47에 수록된 싸움터에서 죽은 무인들은 모두 다

7세기에 활동했다. 7세기는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을 치른 시기이다. 이 무렵 신라는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많이 수행했다.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은 거의 7세기 내내 진행된 장기간의 싸움이었다. 따라서 신라의 무인담이 7세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신라의 무인담은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고, 전승되어 온 것으로 본다.

이 시기를 살았던 신라인들은 계속되는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용맹하게 싸웠거나 자신을 희생한 무인들을 기억하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인담의 말미가 ‘포상’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바로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해론이 죽자 진평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사람들은 長歌를 지어 조문했다고 했으며, 김흠운이 전사했을 때는 사람들이 陽山歌를 지어 애도했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당대의 신라인들이 전사한 무인들을 기억하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라 무인담 중에서 귀족 출신 혹은 화랑 출신이 아닌 무인담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이 소략하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출신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귀족이나 화랑들은 그들의 가계에 대한 설명이 제법 자세한 편이다. 또한 상층 귀족 출신일 경우, 등장인물의 가문을 굳이 생략했을 가능성은 낮다. 굳이 귀족 출신이라는 사실을 감출 필요는 없었을 것이며, 오히려 이를 드러내어 널리 알리는 것이 당시 신라인들의 의식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부자 사이인 찬덕과 해론, 몰래 입당하여 전공을 세운 설계두, 분전하다 죽은 눌최와 그의 뒤를 따른 중, 대야성이 함락되었음에도 싸우다가 죽은 죽죽과 그의 수하였던 용석 등은 높은 신분은 아니었다. 또한 왕족이었던 김흠운을 따라 함께 전사한 예파·적득·보용나, 삼형제가 모두 전사한 취도와 부과와 꺾실, 심나와 소나 또한 귀족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처럼 신라 무인담에는 귀족이나 화랑 출신이 아닌 무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의 상·하층민이 일심으로 싸움에 참전했으며, 또한 출신보다는 戰功의 비중을 높게 평가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얼마나 결정

적인 전공을 세웠는가 또는 얼마나 굳은 용기를 보여주었는가를 더욱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출신에 상관없이 최일선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기억하고 포상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사회·문화적 풍토 속에서 서민 출신 무인담이 왕성하게 전승되었던 것이다.

3. 전공담의 유형과 구조

신라 무인담 속에는 그들의 출생·성장이나 수련과정, 장수로서의 자질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승되는 각편의 수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에 띌 만한 유형성도 두드러지지 않는 편이다. 그에 비하여 전공담은 전승되는 자료의 양도 상당히 많고 유형성도 분명하다는 점에서 신라 무인담의 핵심적 자료라고 평가될 만하다. 따라서 전공담은 신라 무인담의 면모와 그 속에 함축된 신라인들의 의식세계를 엿볼 수 있는 좋은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전공담은 전쟁터에 나아가 결정적인 활약을 펼치거나 싸움의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군공을 세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이때 주인공이 펼치는 활약의 내용과 그 비중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공담은 주인공의 활약상에 초점을 두어 분전형, 지략형, 희생형, 신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1. 분전형

분전형 전공담은 주인공이 용맹하게 싸움에 임하여 공을 세웠다는 이야기이다. 싸움의 결과보다 ‘주인공이 어떻게 싸웠는가?’에 초점이 놓여 있는 이야기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사다함에 관한 기사는 분전형의 기본구조를 잘 보여준다.

㉠ 진흥왕이 이사부에게 명하여 가야를 습격하게 하였다.

- ㉞ 사다함이 중군하기를 청하매 왕이 귀당비장을 삼아 출전을 허락했다.
- ㉟ 선봉을 맡은 사다함은 신속히 전단량을 공격하여 가야군 진영을 혼란에 빠트렸다.
- ㊱ 그 뒤를 이어 신라의 대군이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고 가야를 멸망시켰다.
- ㊲ 진흥왕이 사다함에게 상으로 포로를 주었으나 모두 풀어주었으며, 그 대신 알천의 거친 땅을 하사받았다.⁸⁾

제5대 풍월주로 알려진 사다함의 전공을 다룬 기사인데, ‘위기-분전-위기 해소-포상’이라는 순차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신라와 가야 사이에 조성된 위기는 사다함의 분전을 통해 해소되고, 위기 해소의 결과로 포상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각각의 단락은 서로 물고 물리는 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런 인과 관계는 이야기 전체의 긴밀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위기-위기 해소’는 상호 대립 관계를 보여주는 서사단락이다.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싸움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심각한 위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다함의 분전담은 인과와 대립에 기초한 ‘위기-분전-위기 해소-포상’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보여준다. 주인공도 한 명뿐이고 위기와 분전도 한 번만 이루어진다. 그 결과 단락 사이에 형성된 대립과 인과의 관계도 한 번씩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사다함 이야기는 분전형의 기본구조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단일형태의 기본구조는 김영운, 필부, 열기, 설계두의 전공담에서도 확인된다. 김영운은 고구려의 잔적을 소탕하는 보덕성 전투에서 홀로 나아가 싸우다가 전사한다.⁹⁾ 필부는 칠중성 전투에서 처음에는 고구려의 공세를 잘 막아냈으나 부하인 비삼의 배반으로 인해 분전하다 죽는다.¹⁰⁾ 열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고구려의 매복과 포위를 뚫고 나아가 소정방에게 편지를 전하는 공을 세운다.¹¹⁾ 설계두는 특이하게도 당 태종을 따라 고구려

8) 『삼국사기』, 권44, 열전, <사다함>.

9) 『삼국사기』, 권47, 열전, <김영운>.

10) 『삼국사기』, 권47, 열전, <필부>.

공략에 출정했다가 주필산 전투에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 싸우다 전사한다.¹²⁾ 이처럼 김영윤, 필부, 설계두 이야기는 단일한 주인공이 등장하여 위기를 해소하는 기본구조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주인공이 한 명 이상일 경우에는 나열형태와 중속형태를 보여준다. 먼저 나열형태를 띤 찬덕과 해론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 ㉠ 진평왕이 찬덕을 가잠성 현령에 임명했다.
- ㉡ 찬덕이 백제군의 공격을 100여 일 동안 막아냈다.
- ㉢ 왕이 구원군을 보냈으나 백제에게 패하여 돌아갔다.
- ㉣ 찬덕이 홀로 끝까지 싸우다 자결하고 성은 함락되었다.
- ㉤ 해론은 20살에 대나마 관등을 받고 금산당주에 임명되었다.
- ㉥ 진평왕이 해론에게 가잠성을 빼앗게 했다.
- ㉦ 해론이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었다.
- ㉧ 왕은 관직을 추증하고, 사람들은 장가를 지어 조문했다.¹³⁾

찬덕과 해론 부자의 전공담은 나열형태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찬덕의 전공과 해론의 전공을 나란히 서술하고, 그들에 대한 포상과 애도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이때 찬덕이나 해론의 전공담은 각각 독립적인 이야기이다. 아마 찬덕의 전공담이 먼저 형성되어 전해지다가, 훗날 그의 아들인 해론마저 전사하게 되자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부자가 같은 장소에서 전사했다는 점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좋은 단서를 제공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나열형태는 부자관계인 심나-소나, 형제관계인 취도-부과-핍실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심나는 백성군 일대에서 벌어진 백제와의 싸움에서 분전하여 승리한 인물이고, 소나는 아달성을 침략한 말갈족과의 싸움에서 싸우다가 죽은 인물이다.¹⁴⁾ 취도-부과-핍실의 삼형제 이야기도 마

11) 『삼국사기』, 권47, 열전, <열기>.

12) 『삼국사기』, 권47, 열전, <설계두>.

13) 『삼국사기』, 권47, 열전, <해론>.

14) 『삼국사기』, 권47, 열전, <소나>.

찬가지이다. 취도는 백제와의 조천성 싸움에서, 그의 형 부과는 웅진성 싸움에서, 그의 동생 꺾실은 보덕성 싸움에서 각각 싸우다가 죽었다.¹⁵⁾ 이 역시 시차를 두고 일어난 일들이지만, 부자 혹은 형제가 나라를 위해 분전하다가 죽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하겠다.

다음, 종속형태를 띤 김흠운의 전공담을 보기로 한다.

- ㉠ 김흠운은 태종무열왕이 백제를 공격할 때 낭당대감이 되어 출전했다.
- ㉡ 백제의 야간습격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신라군은 후퇴하기로 했다.
- ㉢ 김흠운은 피신하지 않고 홀로 남아 싸우다가 죽었다.
- ㉣ 예파, 적득, 보용나도 그의 뒤를 따라 싸우다가 죽었다.
- ㉤ 왕이 관직을 추증하고, 사람들이 양산가를 지어 애도했다.¹⁶⁾

김흠운은 백제가 점령하고 있던 조천성 탈환전에 출전하여 불리한 전세에도 불구하고 분전하다 죽는다. 그의 뒤를 따라 예파, 적득, 보용나 또한 적진에 뛰어들어 전사한다. 이들 네 사람은 상하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 때문에 예파, 적득, 보용나의 죽음은 김흠운의 죽음에 종속된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종속형태는 늘최와 중, 죽죽과 용석의 전공담에서도 확인된다. 늘최는 마지막 순간까지 백제와 싸우다가 죽고, 평소 그가 아꼈던 중 역시 끝까지 화살을 쏘며 대항하다 주인의 뒤를 따른다.¹⁷⁾ 죽죽도 백제와의 대야성 전투에서 항복하지 않고 싸우다가 죽게 되며, 그의 부하인 용석도 죽죽의 뒤를 따라 죽는다.¹⁸⁾ 다만, 이때 늘최의 중과 용석의 분전담은 독립적 성격이 매우 약한 편이다. 중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준 주인의 이야기 속에, 그리고 용석은 자신이 모시던 상급자의 이야기 속에 포함된 일부분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나열이나 종속형태의 이야기는 ‘위기-분전-위기 해소-포상’이라는 기본구

15) 『삼국사기』, 권47, 열전, <취도>.

16) 『삼국사기』, 권47, 열전, <김흠운>.

17) 『삼국사기』, 권47, 열전, <늘최>.

18) 『삼국사기』, 권47, 열전, <죽죽>.

조를 다소 변형시킨 경우이다. 나열형태는 이러한 기본구조 전체를 두세 번에 걸쳐 반복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종속형태는 ‘분진’ 단락만을 두세 번 반복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기본 형태에 비해 주제를 전달하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한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락이 반복됨으로써 등장인물들이 보여준 분진의 의미는 더욱 부각된다. 따라서 나열이나 종속형태는 보다 발전적인 변형구조라고 할 수 있다.

3.2. 지략형

지략형 전공담은 지혜로운 방법이나 계략을 이용하여 싸움에 이기거나 특별한 군공을 세운 이야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특정인이 위기에 직면하여 용맹무쌍한 행동으로 군공을 세우는 것과는 다르다. 힘보다는 지혜로, 용맹스러운 행위보다는 슬기로운 계책으로 군공을 세우는 경우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전승자들도 등장인물이 펼치는 지혜와 계책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이야기를 전승한다.

먼저, 지략형의 첫 번째 예화로는 居道를 들 수 있다. 거도는 그의 가계와 성씨가 전하지 않아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인물이다. 다만, 탈해 이사금 때에 벼슬에 올랐으며,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을 멸망시켰다고 전해진다.

- ㉠ 우시산국·거칠산국은 신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는데, 두 나라는 신라의 걱정거리였다.
- ㉡ 거도가 지방관이 되어 두 나라를 병합시킬 생각으로 매년 한 번씩 군사들을 모아 馬技를 거행했다.
- ㉢ 그 후 거도는 마기를 하는 척하며 군사를 일으켜 두 나라를 멸하였다.¹⁹⁾

우시산국은 울산지역에, 거칠산국은 동래지역에 존재했던 작은 부족국가인데, 거도가 지략을 이용하여 이들 두 나라를 복속시켰다는 것이다.²⁰⁾ 1세

19) 『삼국사기』, 권44, 열전, <거도>.

기경 신라는 신생국가로서 국력이 미약했던 시기였다. 이 무렵 경주 주변에 위치했던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은 신라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도는 마기라는 놀이를 하는 척하면서 군사를 일으켜 두 나라를 병합시켰다고 했다. 이러한 거도의 전공담은 ‘위기-지략-위기 해소’로 정리할 수 있다.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으로 인해 조성된 위기를 마기라는 계책을 이용하여 일거에 해소시켰다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때 계략은 적이 미처 예기치 못했던 싸움방식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거도의 경우처럼 하나의 지략으로 위기를 해소하는 단순형태는 김유신과 관련된 두 가지 예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선덕여왕 16년(647)에 비담의 난이 일어났을 때 큰 별이 월성에 떨어지는 변고가 있었는데, 김유신이 연을 이용하여 불붙인 허수아비를 날려 보내는 계략으로 반란군의 전의를 꺾었다는 이야기이다.²¹⁾ 둘째는 문무왕 2년, 김유신이 소정방에게 군량을 전해 주고 오는 길에 소의 허리에 북을 달아 군사가 많은 것처럼 꾸며서 고구려의 추격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이다.²²⁾ 이들 두 예화는 ‘위기-지략-위기 해소’의 기본적인 구조를 통해 김유신의 지략을 잘 보여주는 삽화라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런 지략이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 ㉠ 이사부는 변경의 지방관에 임명되어 가야를 복속시키기를 소망했다.
- ㉡ 이사부는 거도의 馬戲를 답습하여 가야국을 속여 취하였다.
- ㉢ 지증왕 13년(512) 이사부는 아슬라주 군주로서 우산국을 병합하고자 했다.
- ㉣ 이사부는 나무사자를 만들어 전선에 신고 가서 우산국 사람들을 위협했다.
- ㉤ 우산국 사람들이 이사부의 말에 속아 항복했다.

20) 『삼국사기』에는 복속 연도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후대에 발간된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동사강목』에는 탈해왕 23년에 신라가 이들 두 나라를 병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21) 『삼국사기』, 권41, 열전, <김유신>.

22) 『삼국사기』, 권42, 열전, <김유신>.

- ㉑ 진흥왕 11년(550) 도살성 금현성을 빼앗으려 백제와 고구려가 크게 싸웠다.
- ㉒ 두 나라 군사가 피로한 틈을 타서 이사부는 두 성을 빼앗았다.
- ㉓ 이사부는 두 성의 방어를 굳게 하여 고구려의 공격을 물리쳤다.²³⁾

이사부의 전공담 속에는 가야 병합담, 우산국 병합담, 도살성 금현성 탈취담 등 세 개의 삽화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첫 번째의 가야 병합담은 마회를 이용한 것으로, 거도의 전공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번째의 우산국 병합담은 가짜 맹수를 이용하여 단 한 차례의 직접적인 싸움도 없이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극적인 속임수라고 하겠다. 세 번째는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싸우는 틈새에서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漁父之利의 묘미를 보여주는 지략이다.

이처럼 이사부의 전공담은 세 번에 걸쳐 반복되는 계략을 통해 승리를 달성하는 통쾌함을 보여준다. ‘위기-지략-위기 해소’의 서사구조를 반복하되, 첫 번째는 예전의 지략을 그대로 모방하고, 두 번째는 극적인 속임수를 활용하며, 세 번째는 주변국의 틈새를 이용한 실리적인 지략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전승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지략을 골고루 가미시키게 되어 이야기의 재미를 한층 증폭시켰다고 본다.

3.3. 희생형

희생형 전공담이란 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거나 또는 희생할 의도를 가지고 출전하여 전공을 세운 이야기를 말한다. 이러한 희생은 자의적일 수도 있고, 타의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희생형 전공담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바치려는 의도나 행위가 뚜렷하게 부각된 경우를 두루 포함하는 유형이다.

한편, 희생형 전공담의 전형적인 예화는 관창 이야기이다.

23) 『삼국사기』, 권44, 열전, <이사부>.

- ㉠ 무열왕 7년(660) 황산벌 싸움에서 신라군이 연달아 패하여 전의를 상실했다.
- ㉡ 김흠춘이 아들 반굴을 불러 목숨을 바칠 것을 권유했다.
- ㉢ 반굴이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싸우다 죽었다.
- ㉣ 그래도 신라군의 사기가 오르지 않았다.
- ㉤ 김품일이 아들 관창을 불러 기개와 용기를 보이라고 했다.
- ㉥ 관창은 적진에 돌격하여 싸우다 죽었다.
- ㉦ 신라 군사들이 관창의 시신을 보고 격양되어 백제군을 패배시켰다.
- ㉧ 왕이 관창에게 급찬의 관등을 추증하고 후하게 포상했다.²⁴⁾

백제 공략의 분수령이 되었던 황산벌 싸움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신라 군사들이 사기가 저하되자 이를 역전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반굴과 관창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위기-희생1·2-위기 해소-포상’의 서사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이야기의 초점은 반굴과 관창의 비장한 죽음과 그들의 희생이 가져온 엄청난 승리에 놓여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반굴과 관창이 돌격하여 희생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자세하고 극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희생형에서 조성된 ‘위기’의 국면은 불리한 전세 내지 군사들의 심각한 사기 저하로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키거나 군사들의 사기를 순식간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면 전환용 희생’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아군의 사기를 급상승시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희생형 전공담의 서사적 논리이다.

한편, 김유신의 낭비성 전공담에서도 이와 유사한 희생담을 볼 수 있다. 진평왕 51년(629)에 신라군이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할 때 전세가 불리해져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 이때 김유신이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자청하여 혼자 적진에 돌진한 뒤 고구려 장수의 목을 베어 돌아왔는데, 이를 계기로 신라군의 사기가 올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²⁵⁾ 이 이야기에서도 ‘위

24) 『삼국사기』, 권47, 열전, <김영운> 및 <관창>.

25) 『삼국사기』, 권41, 열전, <김유신>.

기-희생-위기 해소'라는 희생형의 기본골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령자 이야기에서는 희생형과 분전형이 함께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 ㉠ 진덕왕 원년(647)에 백제의 대군이 신라를 침략했다.
- ㉡ 김유신이 나아가 막았으나 이기지 못하여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 ㉢ 김유신이 비령자를 불러 용기를 보여 군사들을 격양시켜 달라고 청했다.
- ㉣ 비령자가 홀로 적진에 돌진하여 몇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다.
- ㉤ 그의 아들 거진이 주위의 만류를 물리치고 돌진하여 싸우다 죽었다.
- ㉥ 중 합절도 주인의 뒤를 따라 돌진하여 싸우다 죽었다.
- ㉦ 신라 군사들이 세 사람의 죽음을 보고 감격하여 백제군을 대패시켰다.
- ㉧ 왕이 세 사람의 장례를 후히 치르고, 처자에게 큰 상을 내렸다.²⁶⁾

비령자의 희생담은 그의 아들 거진과 그의 종인 합절의 분전담이 함께 결구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비령자의 희생은 그의 자발적 선택임과 동시에 김유신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상·하층민의 마음과 뜻이 상통했음을 상징한다. 거진이 보여준 충효 일체의 정신, 합절이 보여준 主奴 일체의 정신도 상층과 하층 내지 큰 것과 작은 것 사이의 상통을 보여준다. 이렇게 비령자 이야기는 중층적 의미구조를 ‘위기-희생-분전1·2-위기 해소-포상’이라는 서사단락으로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희생형과 분전형이 함께 결합되어 나열된 변이 형태라고 할 것이다.

3.4. 신조형

신조형 전공담은 신령스러운 존재의 도움에 힘입어 전공을 세운 이야기를 말한다. 이들 이야기는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데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물리적 힘의 우위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6) 『삼국사기』, 권47, 열전, <비령자>.

신령의 도움이 뒷받침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사회에서 흔히 받아들여졌던 인식이며, 이와 관련된 전공담이 몇 편 전해지고 있다. 먼저, 장춘랑과 파랑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 태종무열왕 6년(659)에 당의 파병 회보가 없어 왕이 몹시 근심했다.
 - ㉡ 홀연히 장춘랑과 파랑이 현몽하여 소정방이 백제를 치러오기로 결정되었다고 알려주었다.
 - ㉢ 왕이 장의사를 세워 명복을 빌게 하고 후손들에게 후한 상을 내렸다.²⁷⁾
-
- ㉠ 태종무열왕이 백제를 공략할 때 장춘랑과 파랑이 황산벌에서 죽었다.
 - ㉡ 훗날 왕의 꿈에 나타나 군사를 주면 소정방의 위엄에 놀리지 않고 싸우겠다고 했다.
 - ㉢ 왕이 장의사를 세워 명복을 빌게 했다.²⁸⁾

장춘랑과 파랑 이야기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해지는데 이야기의 세부 국면은 조금 상이하다. 『삼국사기』에는 장춘랑과 파랑이 659년 9월에 현몽하여 당나라에서 대군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삼국유사』에는 황산벌 싸움에서 죽은 이후 소정방의 위엄에 놀려 뒤편 쫓아다니는 신세라고 하면서 군사를 달라고 청했다고 했다. 이러한 차이점을 보면, 장춘랑과 파랑의 이야기는 하나는 친당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반당적인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로 대립된다. 이는 신라인들의 인식이 친당에서 반당으로 변모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삼국유사』의 기록은 후대의 변이일 것으로 보인다.²⁹⁾

그렇지만 이들 두 자료는 신령스러운 존재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신라의 입장에서 볼 때 당나라의 회보가 없어 왕이 근심하는 것이나, 소정방의 위엄에 놀려 남의 뒤편 쫓아다니는 것은 국

27)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28) 『삼국유사』, 권1, <장춘랑 파랑>.

29) 정재민, 「소정방이야기에 나타난 다층적 인식세계」,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0집, 한일군사문화학회, 2010, 261~264쪽.

가적인 위기 국면이다. 이러한 위기를 장춘량과 파랑의 도움을 통해서 해소 하여 신이성을 증가시킨다. 『삼국사기』에서는 ‘위기-신조-위기 해소-포상’의 열개가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 반면에 『삼국유사』에는 ‘위기 해소’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표면적인 언술이 없다고 해서 ‘위기 해소’의 단락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³⁰⁾ 백제 정복 이후 당나라와의 갈등과 반목이 있었으며, 신라는 이를 잘 해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면상의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이들 두 각편은 ‘위기-신조-위기 해소-포상’이라는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삼국유사』는 ‘위기 해소’ 단락이 결락된 다소 불완전한 구조를 보여줄 뿐이다. 다음은 김유신이 신조를 빌어 고구려와 말갈의 공격을 물리친 이야기를 보기로 한다.

- ㉠ 문무왕 원년(661)에 고구려 말갈 연합군이 북한산성을 포위 공격했다.
- ㉡ 급보를 접한 김유신은 제사를 지내어 신의 도움을 청했다.
- ㉢ 갑자기 큰 별이 적진에 떨어지고 천둥과 벼락이 치면서 비가 왔다.
- ㉣ 고구려·말갈군이 두려워하며 포위를 풀고 도망쳤다.
- ㉤ 사람들이 모두 지극한 정성이 신령을 감동시켰다고 했다.³¹⁾

북한산성 신조담은 ‘위기-치성-신조-위기 해소-평가’의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구려와 말갈군의 침입과 후퇴는 ‘위기-위기 해소’의 대응단락을 이루고 있고, 김유신의 기도와 천변은 ‘치성-신조’의 대응단락을 이룬다. 전 후반부 사이의 대응을 통해 이야기는 안정적으로 전승된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김유신이 신조를 간청하는 ‘치성’ 단락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조’가 이루어진 계기가 김유신에게서 비롯되었기에 ‘치성’ 단락이 삽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춘량 파랑 이야기와는 크게 다른 부분이다. 장춘량 파랑은 혼령 쪽에서 먼저 도와주겠다고 한 경우이기

30) 장춘량과 파랑 이야기는 『삼국유사』 기이편에 실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연이 설화의 신이성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위기해소 단락을 생략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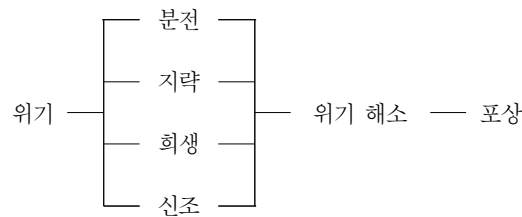
31) 『삼국사기』, 권42, 열전, <김유신>

때문에 ‘치성’ 단락이 필요치 않다. 그에 비해 북한산성 신조담은 인간이 신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것이기에 ‘치성’과 ‘신조’ 단락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치성’ 단락은 인간의 역할이 보다 강조된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전공담의 하위유형과 그 서사구조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공담은 이야기의 서술초점에 따라 분전형, 지략형, 희생형, 신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행위가 어떤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는지, 그럼으로써 전승자들에게 어떤 주제를 전달하고자 했는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각 유형의 서사구조를 살펴본 결과 분전형은 ‘위기-분전-위기 해소-포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략형은 ‘위기-지략-위기 해소’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 희생형에는 ‘위기-희생-위기 해소-포상’의 구조가 나타났으며, 신조형은 ‘위기-신조-위기 해소’의 구조를 보여주었다.

이를 보면 네 가지 유형이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기-위기 해소’는 모든 유형에 공통되는 단락으로서 각각 이야기의 서두와 결말을 이룬다. 그와 달리 ‘분전·지략·희생·신조’ 단락은 유형별로 상이한 내용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들은 모두 위기 해소의 방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전공담의 하위유형들은 전체적인 공통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형별 특성이 반영된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전공담에 담긴 신라인의 의식세계

신라 무인담은 삼국시대 무인담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당대인들의 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창구이다. 이를 무인담에 나타난 승패인식과 정형화된 죽음의 방식,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무인상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4.1. 신라인의 승패인식과 ‘내적 승리’의 추구

무인담의 중요한 국면은 싸움의 결과이다. 적과 싸워 이겼는지 졌는지에 따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싸움에 이겼는지 졌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의 승패는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그것은 싸움의 성과, 즉 전과를 살펴보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느 편이 더 많은 전과를 올렸는지, 혹은 어느 편이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지 등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사실적인 승패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식상의 승패이다. ‘무력으로 충돌했던 당사국이 싸움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예는 흔히 있는 일이다. 임진왜란의 경우에도 조선이 이긴 전쟁인지 아니면 패한 전쟁인지에 대한 논란이 대립되어 있다. 어떤 입장에 서는가에 따라서 승패에 대한 규정이 달라진다. 왜군에게 조선이 패배한 전쟁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임진왜란 이후 도요토미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에 왜군이 패배한 전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³²⁾ 이렇게 전쟁에 대한 승패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2) 이우성·임형택 대담, 「임진왜란, 민족의 어제와 오늘」, 『창작과 비평』 제78호, 창작과 비평사, 1992. 12~20쪽.

따라서 이런 시각을 감안한다면 신라 무인담에 나타난 승패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승패인식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싸움의 실제 결과와 그에 대한 인식의 방향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추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싸움의 실제 결과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승패를 말한다. 전쟁은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사실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싸움이 어떻게 결말지어졌는지 비교적 명료하게 알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싸움 결과에 대한 인식적 방향이란, ‘당대인들이 싸움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인식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인식적 방향에 대해서는 싸움이 끝난 이후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사람들이 싸움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싸움의 실제 결과와 그에 대한 인식적 방향이 만들어내는 조합은 크게 4가지로 상정된다.

구분	①	②	③	④
사실차원	승리	승리	패배	패배
인식차원	승리	패배	승리	패배

먼저, ①의 ‘승리-승리’라는 조합은 전형적인 승전담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겼으며, 사람들도 이긴 것으로 받아들인다. 거도의 우시산국 병합담,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담, 사다함의 가야 정복담, 김유신의 낭비성 전공담, 황산벌의 승전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경우에는 벼슬을 추증하거나 재물을 하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②처럼 ‘승리-패배’의 조합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실제로는 이겼는데, 사람들이 이를 패배로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는 원술량의 매소천성 전투를 들 수 있다. 매소천성 전투는 나당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대규모 싸움이였다. 이 싸움에서 신라군은 대승했으며, 이러한 승리의 결과로 나당전쟁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원술량은 이처럼

중요한 싸움에 출전하여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이후 그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은둔하다가 세상을 마쳤다. 싸움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공으로 나라에서 포상도 받았지만, 원술량은 승리를 승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승리를 個人化시켜 ‘패배’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원술량 한 사람에게 국한된 특수한 경우라고 그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 원술량의 태도는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③과 같은 ‘패배-승리’의 조합은 실제 싸움에서는 졌으나 사람들은 이긴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이런 예는 다수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찬덕 : 가잠성에서 패하고 분사, 아들에게 벼슬을 내림

설계두 : 고구려 원정에 패하고 전사, 어의를 하사함

눌최 : 봉잠성 등에서 패하고 전사, 급찬 추증

죽죽 용석 : 대야성에서 패하고 전사, 급찬 대나마 추증, 처자 포상

김흠운·예파·적득·보용나 : 조천성에서 패한 후 전사, 관직 추증, 양산가를 지어 애도

필부 : 칠중성에서 패하고 전사, 급찬 추증

취도 : 조천성에서 패하고 전사, 사찬 추증

소나 : 아달성에서 패하고 전사, 잡찬 추증, 군민들이 조문함

이와 같이 실제로는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을 받은 인물이 상당수 존재한다. 패배했다면 그에 대한 징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징벌 대신 포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신라인들의 승패인식이 남달랐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④처럼 ‘패배-패배’의 조합이다. 실제로 패했고, 또한 사람들도 싸움의 사실적 결과를 받아들여 패배로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예는 김흔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흔은 대구에서 청해진 군사와 싸우다가 패배하자 소백산으로 들어가 숨어살다가 죽는다. 대장군으로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징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 무인담에 나타난 승패인식은 4가지 조합을 보여준다. 이들 중에서 ‘승리-승리’와 ‘패배-패배’는 보편적인 경우라고 하겠으나, ‘승리-패배’와 ‘패배-승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인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실제 사실과 사람들의 인식이 서로 상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사례가 존재하는 ‘패배-승리’의 경우는 각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패배-승리’의 조합이 많은 것은 신라인들이 내적 승리 내지 정신적 승리를 앞세웠으며, 싸움의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을 중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상층민보다 하층민이 매우 불리한 전세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전사했다는 이야기야말로 신라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공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라인들은 현실 속의 패배 그 자체보다는 패전 과정에서 보여준 무인들의 용맹한 행위를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의 무인에 주목하여 그의 용맹한 죽음을 초점화 시킴으로써 현실 속의 패배를 감추려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바로 신라인들이 전공담을 대량으로 전승하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를 향유했던 인식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4.2. 決死, 순교자적 죽음의 방식

신라 무인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죽음은 장렬하고 비장하다. 싸움의 승패와 상관없이 무인들의 죽음이 특별히 비장하게 전해지는 이유는, 신라인들이 무인들의 죽음을 남다르게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쟁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예사롭지 않은 의미를 가진 숭고한 죽음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신라 무인들의 죽음을 두고 일찍이 최남선은 의를 중시하고 死를 경시하는 殉國至上主義라고 규정한 바 있다.³³⁾ 또한, 최근에는 7세기의 삼국통일전쟁과 결부시켜 이러한 죽음이 신라인의 순국주의적 생사관에서 기

33) 최남선, 앞의 책, 30~31쪽(『육당 최남선전집』 권7, 역락출판사, 2003, 485~486쪽.)

인한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³⁴⁾ 이런 논의들은 신라 무인들이 보여준 죽음의 가치를 개념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인 죽음의 방식을 고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신라인들의 생사관과 자기희생적인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본다면 신라 무인들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더욱 깊게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신라 무인들의 決死의 정신과, 이를 반영한 순교자적 죽음의 방식이라 규정하고 그 정형화된 면모를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몇몇 인상적인 죽음의 장면을 들어보기로 한다.

① 백제의 침공이 더욱 급박해져 속함, 기잠, 혈책의 세 성이 함락되거나 또는 항복하였다. 눌최가 남은 세 성을 굳게 지키다가 5군이 구원하지 않고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병졸에게 말하기를 “봄날의 따뜻한 기운에는 모든 초목이 꽃을 피우지만 추위가 닥치면 오직 소나무와 잣나무만이 늦게 낙엽진다. 지금 외로운 성에 구원이 없어 날로 더욱 위험하다. 지금이 바로 진실로 뜻있는 병사와 의로운 사람이 절조를 다 바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때이다. 너희들은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³⁵⁾

② 죽죽이 남은 병졸을 모아 성문을 닫고 몸소 대항하니 舍知 龍石이 죽죽에게 말하기를 “지금 군대의 형세가 이러한데 반드시 온전할 수 없다. 항복하여 살아서 후일을 도모함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죽죽이 답하기를 “그대의 말이 합당하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죽이라고 이름 지어 준 것은 나로 하여금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절조를 지켜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게 한 것이니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아서 항복하겠는가?” 하였다. 드디어 힘써 싸워서 성이 함락되자 용석과 함께 죽었다.³⁶⁾

③ 황산에 이르러 양쪽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자 아버지 품일이 관창을 불

34) 나희라, 「7세기 전쟁의 확대와 신라인의 순국주의적 생사관」, 『한국고대사연구』 제53집, 한국고대사학회, 2003, 273~301쪽; 강중훈·정운용·강문호, 「7세기 통일전쟁기의 순국 인물 분석」, 『신라문화계학술논문집』 제25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4, 129~159쪽.

35) 『삼국사기』, 권47, 열전, <눌최>.

36) 『삼국사기』, 권47, 열전, <죽죽>.

러 말하기를, “너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뜻과 기개가 있으니 오늘이 바로 공명을 세워 부귀를 취할 수 있는 때이니 어찌 용기가 없을 손가?” 하였다. 관창이 “예” 하고는 곧바로 말에 올라 창을 빗겨들고 적진에 곧바로 진격하여 말을 달리면서 몇 사람을 죽였다.³⁷⁾

①은 놀최가 속함성, 기잡성, 혈책성을 지키기 어려워지자, 군사들에게 분전하도록 격양시킨 후 전사하는 장면이다. ②는 대야성 싸움에서 신라군이 고전 끝에 패할 때 죽죽이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분전하는 장면이다. ③은 황산벌 싸움에서 관창이 부친의 권유를 받고 출전하여 희생되는 장면이다.

구분	하위유형	신분	출전 계기	싸움의 결과
① 놀 최	분전형	하위층	자의적 선택	전사/패배
② 죽 죽	분전형	상위층	자의적 선택	전사/패배
③ 관 창	희생형	상위층	타의적 권유	전사/승리

이들 장면은 신라 무인들의 죽음의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 이야기는 등장인물의 신분계층과 출전계기가 상이하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이 맞이한 최후의 순간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불리한 전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인공은 자의적·타의적 출전을 결행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의 죽음 이후 신라군이 패배하는 경우도 있고, 전세를 역전시켜 이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화들을 살펴 보건대, 신라 무인들의 죽음은 대체로 마지막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신의 소회를 밝힌 후에 분전하다가 죽음에 이른다. 완전하다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일치되는 定型性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

37) 『삼국사기』, 권47, 열전, <관창>.

로 신라 무인들이 위기의 국면에 처했을 때 죽음에 이르는 방식이 정형화 되어 있다고 할 만하다.

이때 무인들이 처한 마지막 위기는 전체적인 싸움의 흐름으로 볼 때 클라이맥스에 해당한다. 그 위태로운 절정의 순간에 밝히는 주인공의 소회는 곧 죽음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백이다. 이러한 죽음의 방식은 마치 自獻致命하는 순교자의 죽음과 유사하다. 그 유사성은 이차돈의 순교담과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면이다.

법흥왕 15년(528)에 이차돈은 대부분의 신하들이 불교를 반대하며 자신을 핍박하자, 왕에게 “불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청한다. 왕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이차돈을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음을 알면서도, 신하들의 완강한 반대를 깨뜨리기 위해 이차돈을 참수형에 처하도록 한다. 참수에 앞서 이차돈은 “나는 불법을 위하여 형을 당하는데 부처님께서 만약 신령스러움이 있다면 나의 죽음에 반드시 이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죽는다. 그리고 이차돈의 목에서 흰 피가 솟구치는 이적이 일어나 신하들이 더 이상 불교를 헐뜯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³⁸⁾

이러한 이차돈의 삶은 ‘수난-고백-순교-이적-공인’이라 요약할 수 있는데,³⁹⁾ 이는 신라 무인들의 죽음의 과정과 상당히 닮아 있다. 물론 신라 무인들이 종교적 이념을 증험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신념화된 공리적 헌신의 정신을 실천해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구조적 유사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희생형의 대표적 예화인 관창 이야기에서는 이런 순교자적 죽음의 모습이 명징하게 나타난다.

3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법흥왕>.

39) 이유진, 「한국 천주교 순교자 설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2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259쪽에서도 순교자 설화의 핵심단락을 ‘입교-고난-순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적’은 각편에 따라 존재하고 있으며, ‘공인’은 비록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순교’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사단락	이차돈의 순교담	관창의 희생담
수난	신하들의 극심한 반대	신라군의 잇단 공격실패와 사기저하
고백	불법의 심오함과 부처의 존재 인정	충효와 임전무퇴 정신의 실천
순교	자청하여 참수형을 받음	부친 말에 따라 즉각 출진, 포로가 되어 풀려났다가 다시 출진
이적	목에서 우뚝빛 피가 치솟음	신라군의 사기충천 및 대승
이적결과	불교를 비난하지 않게 됨	백제 공략의 결정적 토대를 마련함

결국 순교자가 죽음으로써 신앙을 증거하듯, 신라의 무인들은 충의와 임전무퇴의 정신을 신념화하고, 이를 토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決死의 길을 택했다. 이처럼 신라 무인들은 위태로운 절정의 순간에 자기 목숨을 바침으로써 불리한 전세를 단번에 뒤집는 이적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죽음은 ‘순교자적 죽음’이라 부를 만하다.

순교자의 죽음은 순교 이전과 이후의 사회적 상황을 정반대로 전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라 무인의 자발적인 희생은 매우 불리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희생형 같은 경우는 당해 전쟁터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고, 분전형의 죽음은 이야기를 통해 널리 확산되면서 후대의 다른 싸움에서 신라군이 승리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 후대인들을 감동시켰다는 예는 김흠운의 경우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김흠운이 어려서 화랑 文努의 문하에서 수련했다. 당시의 무리들이 아무개는 전사하여 이름을 지금까지 남겼다고 말하자 흠운이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며 격동하여 그와 같이 되고자 하였다. 이에 동문의 승려 轉密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약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⁴⁰⁾

40) 『삼국사기』, 권47, 열전, <김흠운>.

김흠운이 눈물을 흘리며 전범으로 삼고자 했던 선배들은 사다함·귀산·찬덕·해론·눌최·죽죽·비령자와 같은 전공담의 주인공들이었을 것이다. 이들 선배 무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흠운은 또 다른 전공담의 주인공으로 성장했다. 이를 보면 순국한 무인들의 이야기는 후인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전범적 삶을 보여주는 교과서였으며, 정서적이고 인식적인 변화를 경험케 하는 집단체험의 매체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순교자적 죽음은 임전무퇴의 계율과 유교적 충의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7세기에 집중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무인들은 설령 그가 화랑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았다고 해도, 전장에 임했을 때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임전무퇴의 정신을 실천하려 했으며, 松柏과 대나무에서 볼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을 숭상했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식적인 무장을 통해 그들은 전쟁터를 자신을 나라에 바치는 순교의 장으로 생각했다.

4.3. 무인의 자질과 전사형 무인상의 정립

마지막으로 신라 무인담에 나타난 무인의 자질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신라인들이 지향했던 무인상의 면모를 추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는 신라 무인담에서 볼 수 있는 정신적 승리를 추구하는 승패인식과, 정형화된 순교자적 죽음의 방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요소이다.

무인의 자질은 그 폭을 한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외적 자질과 내적 자질로 구분할 수 있다. 외적 자질에는 말타기 활쏘기·검술과 같은 무예실력이나, 외모·풍채 힘과 같은 육체적 요소도 포함된다. 이러한 외적 요소들은 훌륭한 무인으로서 필요한 자질들이다. 그러나 이런 외적 자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인이 갖추어야 할 내적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무인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김흠운 : “대장부가 이미 몸을 나라에 바치겠다고 하였으면 사람이 알아주고 모르고는 한가지이다. 어찌 감히 이름을 구하라?”

필 부 : “충신과 의로운 병사는 죽어도 굴하지 않는다.”

김흠춘 : “신하로서는 충성이 제일 중요하고 자식으로서는 효가 제일 중요하다. 위험을 보고 목숨을 바치면 충과 효가 모두 이루어진다.”

김유신 : “제가 평생 충효를 다하겠다고 기약했으니, 싸움에 임하여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 론 : “전일 나의 아버지가 이곳에서 숨을 거두시었는데 내 지금 이곳에서 백제인과 싸우니 오늘이 내가 죽을 날이다.”

찬 덕 : “의리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의리 있게 죽는 것이 낫다.”

죽 죽 : “아버지께서 죽죽이라고 이름을 지어 준 것은 나로 하여금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절조를 지켜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말게 한 것이니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아서 행복하겠는가?”

소 나 : “진실로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고자 도모하지 않을 것이니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어찌 나오지 않겠는가?”

귀 산 : “내가 일찍이 스승에게 들으니 전장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찌 감히 달아나겠는가?”

김영윤 : “전쟁에 임하여 용기가 없는 것은 예기에서 경계하는 것이고, 전진이 있을 뿐 후퇴가 없는 것은 병졸의 떳떳한 분수이다.”

김품일 : “너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뜻과 기개가 있으니 오늘이 바로 공명을 세워 부귀를 취할 수 있는 때이니 어찌 용기가 없을 손가?”

이와 같은 등장인물들의 말을 일괄해 보면, 신라 무인들은 충효, 절의, 용기, 희생정신 등의 덕목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덕목들은 나라의 명운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저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공리적 헌신의 인식적 토대이다. 또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터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내적 자질들이다. 이런 자질들이야말로 싸움에 능한 무인으로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들 외적·내적 자질들은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을 수행했던

6·7세기 신라사회에서 강조된 것이라 하겠으며, 나아가 이는 신라인들이 지향했던 戰士型 무인상과 잇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전사형 무인상은 평화의 시대보다는 전쟁의 시대에 걸맞은 무인상이다. 외세와의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었던 시대일수록 전사형 무인상에 호응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전사형 무인상은 전쟁이 잦았던 7세기 당시의 시대정신의 발로라고 평가된다.

한편, 전사형 무인상은 삼국통일이 완성된 이후에 다소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는 7세기 후반부터 생겨난다. 672년에는 원술량이 석문 전투에서 담릉의 말에 따라 후퇴하는 일이 벌어진다. 담릉이 말고삐를 잡고 강력하게 만류하자, 원술량이 그의 말을 따른 것이다. 이는 비령자의 아들 거진이 자신의 말고삐를 잡고 만류하는 합절을 팔을 자르고 출전하는 것과 비교될 만하다. 원술량의 처사는 거진의 처사에 비한다면, 전사형 무인상의 면모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세기 말에 살았던 죽지랑도 자신의 간청을 거절하는 익선의 방자한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9세기의 효종왕은 효녀 지은을 도와주는 의협심을 가진 인물로 인구에 회자된다. 대장군으로 임명된 김흔도 정해진 군사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후 소백산에 은거하다 죽었다는 것으로 기억된다. 싸움에 진 패장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했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이처럼 전사형 무인상은 7세기 이후 점차 변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투에 출전하여 순교자적 죽음을 감수하는 무인이 아니라, 인정을 베풀거나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는 덕행을 갖춘 무인의 모습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는 삼국통일 이후 신라사회가 처한 사회적·문화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변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5. 나오는 말

신라는 천여 년 동안 나라를 유지하면서 수없이 많은 외침을 막아냈다. 특히, 6·7세기에 전개된 삼국통일전쟁과 나당전쟁은 신라인들의 생활과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싸움들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신라의 무인담이 형성되었다. 이들 무인담 속에는 전쟁 시기를 살았던 신라인들의 남다른 의식세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각에서 신라 무인담의 전승양상을 살펴보고, 유형성이 뚜렷한 전공담을 중심으로 그 속에 담겨진 신라인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신라 무인담은 시대적으로는 삼국통일전쟁을 치렀던 7세기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계층적으로는 상·하층을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삼국사기』 열전에 입전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볼 때 신라인들은 무인의 비중을 비교적 높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는 출신보다는 그 사람이 남긴 행적을 중시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연유로 신라 무인담 중에서 귀족 또는 화랑 출신이 아닌 하층 신분 출신의 무인담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라 무인담은 수없이 많은 싸움을 치르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무장들을 최우선적으로 기억하고자 했던 7세기 신라인들의 시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전공담은 전장에 나아가 적과 싸워 중요한 활약을 하거나 전세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공담은 주인공의 활약상에 초점을 두어 분전형, 지략형, 희생형, 신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전공담의 기본단락은 위기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유형별 서사구조가 조금씩 상이한데, 등장인물의 행적을 기준으로 ‘위기-분전/지략/희생/신조-위기 해소-포상’이라는 공통된 유형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 형태는 등장인물과 설정 상황에 따라 나열 내지 종속 형태의 발전된 변형 구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 전공담 속에 함축된 신라인의 의식세계에 대해서는 승패인식과 죽음의 방식,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무인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신라 무인담에는 네 가지 조합의 승패인식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특징적

인 것은 ‘패배-승리’의 조합을 통해 내적 승리 또는 정신적 승리를 중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싸움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패배의 과정 속에 전사한 한 사람의 용맹한 무인의 죽음을 초점화 시킴으로써, 그가 죽음을 통해 구현하려 했던 임전무퇴의 정신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신라 무인담 속에는 결사의 실행을 통해 정형화된 순교자적 죽음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순교자가 신앙을 고백하고 죽음으로써 순교 이전과 이후의 사회적 상황을 극적으로 전환시키듯, 신라 무인들도 죽음에 임하는 소회를 밝히고 죽음으로써 그의 죽음 이후 매우 불리했던 전세를 정반대로 역전시킨다. 나아가, 이들 전공담은 이야기의 구연과 향유 과정을 통해 후대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전범이자 간접 경험의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후대인들은 선배 무인들의 전공담을 듣고 그들의 죽음을 모방하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순교자적 죽음의 인식이 확대 재생산된 이유는 이른바 임전무퇴라는 계율과 유교적 충의의 정신이 미친 힘이 컸다고 생각한다.

셋째, 전공담 속에는 충, 효, 의, 용기, 희생정신과 같은 덕목을 중시했던 전사형 무인상이 담겨 있다. 전사형 무인상은 삼국의 대립 속에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에 기초한 것으로 전쟁이 잦았던 당시의 시대정신의 발로이다. 이러한 전사형 무인상은 7세기 이후 점차 변화되는 양상을 띤다. 즉, 전투에 출전하여 순교자적 죽음을 감수하는 무인이 아니라, 인정을 베풀거나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는 덕행을 갖춘 무인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신라사회가 처한 사회적·문화적 바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김대문, 이종욱 역주, 『화랑세기』, 소나무, 1999.

김대문, 정태현 역, 『화랑세기』,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제10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9, 325~350쪽.

2. 단행본

김태준, 『조선소설사』, 도서출판예문, 1989.

이종욱,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김영사, 200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권1, 지식산업사, 1982.

조동일 외, 『한국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최남선, 『고사통』, 제3판, 1944.(『육당 최남선전집』, 권7, 역락출판사, 2003.)

3. 논문

강종훈·정운용·강문호, 「7세기 통일전쟁기의 순국 인물 분석」,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제25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4, 129~159쪽.

강혜선, 「삼국사기 열전의 고문적 특성 연구」, 『돈암어문학』 제15집, 돈암어문학회, 2002, 181~210쪽.

나희라, 「7세기 전쟁의 확대와 신라인의 순국주의적 생사관」, 『한국고대사연구』 제53집, 한국고대사학회, 2003, 273~301쪽.

이우성·임형택, 「임진왜란, 민족의 어제와 오늘」, 『창작과 비평』제78호, 창작과 비평사, 1992. 6~49쪽.

이유진, 「한국 천주교 순교자 설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26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249~290쪽.

정재민, 「소정방이야기에 나타난 다층적 인식세계」,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0집, 한일군사문화학회, 2010, 231~273쪽.

A Study on the Transmission and Meaning of Shilla Soldier tales

Jung, Jae-min

There are many Soldier tales that hand down orally or recorded in the *Samguksagi*(History of the Three nations). The periodical background is the 7th century when the Shilla was waged the unification war with Baekje and Gogurye. So the core of these tales is that how the Shilla soldiers have fought against enemy and how they died in battle. Therefore the Shilla soldier tales are the expression on the spirit of the times of Shilla peoples.

The Shilla soldier tales have divided by four types that are hard-fighting type, wise-fighting type, sacrificing-fighting type and god's help-fighting type. These four types have the similar structure which is the narrative order of 'crisis-fighting-crisis escape-reward'.

The Shilla soldier tales have implied the three consciousness of Shilla peoples. Firstly, Shilla peoples have persue the inner victory or spiritual victory. They have laid stress on the warrior's spirit embodied in fighting process. Secondly, these tales have shown the fixed death of martyr. The Hwarang open his heart to king and parents, and then rushed alone for enemy. The fixed death of Hwarang have rolled back the tide of war. Thirdly, the Shilla soldier tales have showed the image of fighting warrior. The fighting warrior image was the expression on the spirit of Shilla peoples at 7th century.

Keyword : Soldier tale, *Samguksagi*, Military merit tale, Inner victory, Death of martyr, Image of fighting warrior

접수일자: 2012. 3. 31
심사기간: 2012. 3. 31~2012. 5. 20
게재결정: 2012. 5. 20